

2002년 제1, 2차 직원 해외연수 실시(5/20~25)(6/17~22)



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각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안전협회는 지난 5월 20~25일 제1차 직원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교육은 지난 3월 16일 임금협약시 노조전임자가 재해예방업무를 겸하여 수행하고, 그 절감 임금을 활용하여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산업연수를 실시하기로 한 내용대로 실시되었으며, 6월 17~22일에는 제 2차 직원 해외연수가 실시되었다. 2002년 직원 해외연수는 총 4차에 걸쳐 100명에 대한 해외연수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며, 안전협회는 향후 동북 아시아 경제부흥시대에 안전활동의 국제화를 위

수원지회 새 터전 마련



수원지회 전직원들은 보다 유용하고 차원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였다.

안전협회 수원지회(국장 박정규)는 6월 12일 근로복지공단 라승신 지사장, 안전협회 이홍지 회장 및 내외귀빈, 지역내 안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가졌다. 수원지회는 대지 504평, 건평 350평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며 안전협회 스스로 힘으로 구입한 사무실로써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새로 준비된 교육장과 최신 시청각 장비는 지역내 안전교육의 효과를 더 한층 향상시킬 것이다. 앞으로 이 사무실이 수원지역 안전활동의 중심점이 되도록

엠코코리아 광주공장 무재해10배 목표달성 기념식



지난 6월 11일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공장(공장장 최용규)은 무재해 10배 목표 2,250만 시간을 달성하여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수 광주 노동청장, 이흥지 안전협회장, 김규현 사장 등 내외귀빈이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1996년 11월 11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한 후 전임직원이 하나로 뭉쳐 이룩한 값진 결실이다. 안전협회에서는 무재해 10배 달성탑과 10배 달성기를 축하 선물로 전달하고, 지속적인 협조로 무재해 15배 달성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엠코코리아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패키징회사로 최고의 품질과 기술의 리더십으로 사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는 회사이다.

풍림산업-안전협회 기술협약 조인



안전협회 서울지회(국장 채수현)는 6월 3일 풍림산업과 건설안전 컨설팅 기술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향후 6개월간 풍림산업 건설현장중 매월 안전관리상태가 미흡한 현장 10~15개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대책 등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1차 홍은동아파트현장 등 3개현장을 점검한 결과 처음으로 외부 전문안전기관에서 실시한 점검이라 새로운 위험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현장점검시 비디오로 위험현장을 촬영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 및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한 안전교육은 그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향후 점검 성과가 좋을 경우 2003년도에는 전체 현장에 대하여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강원지회 우수사업장 견학 및 안전세미나 실시



가 되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내년에 더욱 알찬 행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아쉬움을 남긴채 무사히 행사를 마쳤다.

안전협회 강원지회(국장 최세환)는 회원들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5월23, 24일 이틀간 지역내 회원 등 80여명이 참가하여 한솔제지(주)대전공장, (주)해찬들식품 공주공장 등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을 방문하여 타사업장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야간에는 부여관광호텔에서 안전관리활동 활성화 세미나 및 회원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친목도모를 다졌다.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실시한 행사라서 회원들의 호응도 좋았으며, 회원상호간의 의견교환과 정보교류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유럽 선진철도 현장 안전기술연수 실시(5/21~30)



진국의 철도현장에 대하여 실시된 이번 기술연수는 향후 철도직원들의 직무 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협회 진단팀에서는 지난 5월21일~30일까지 권혁무 팀장 등 4명이 참가하여 유럽 선진철도 현장 안전기술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기술연수는 최근 철도직원들의 직무재해증가에 따라 산업재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철도청과 안전협회는 산재예방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선진국의 선진화 안전관리기법 도입과 자료수집 및 현장작업제도의 연구를 위해 철도청과 합동으로 선진철도기술연수단(12명)을 구성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철도선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부장관 안전단체장 조찬간담회(5/25)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방용석 노동부장관을 비롯해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홍지 회장 등 20여개 안전보건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5월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11층 은하수홀에서 개최된 방용석 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에는 안전신문사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방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건국 이래 세계적인 이목이 한·일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 비교되는 행사이니만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

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홍지 회장은 “우리나라의 안전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쓰는 안전공단의 업무를 민간에게 맡기고, 민간단체와 경쟁하는 업무는 지양할 것 당부하며, 안전공단은 기술창달과 연구에 매진하고, 민간단체에게 안전 활동 업무를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지회 회원사 산업시찰 다녀와



안전협회 제주지회(김성진 사무국장)은 지난 5월 22일 (주)경림산업 회원사 등 50여명과 함께 「안전보건11대 기본수칙 지키기」와 「CLEAN 3D」풍토조성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제주도내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인

(주)
삼다수생수업체와
제주감굴복합